

“5·18 당시 성폭력·고문수사 진실 밝혀라”

여성단체 “5·18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정부, 진상규명 위한 특별기구 구성해야” 촉구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계엄군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폭로하는 증언이 38년만에 나온 가운데 오월민주여성회 등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책임자·가해자 처벌과 전담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오월민주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협의회·광주여성센터 등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성폭력과 고문수사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고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은 국가 폭력에 맞서 시민권리대회를 조직하고 대자보, 성명서, 거리방송을 통해 광주 학살을 알렸다.

또 헌혈, 주먹밥 나눔, 희생자 시신수습, 추모리본 만들기 등에 참여한 등 민주화 투쟁에 적극 가담했다.

하지만 6차민주화운동 피해보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금, 상이, 사망 등 피해자는 258명으로 확인, 여성 행방 불명자들도 있어 피해자는 여전히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계엄군에 붙잡힌 여성들의 성폭력과 고문수사, 집단성폭행 등이 언론보도 등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며 “1989년 광주정문회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고문을 밝혀줄것을 요청했지만 국가와 정치권이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도 전담기구 구성도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는 성폭력과 고문수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전담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라”며 “광주항쟁에서 계엄군의 성폭력은 국가권력이 성차별과 성적 학대를 구조적으로 자행한 국가폭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와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당시 성범죄 피해사례를 모으는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오늘 이자리를 함께한 단체 산하 대책위와 신고센터를 만들어가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오월민주여성회가 4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범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다”며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새로 출범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성범죄 실상을 제대로 조사하도록 여성단체 역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 당시 가두방송을 했던 차명숙씨는 최근 “1980년 보안대와 상무대 영창에서 살이 터져 흰 속옷이 까만 잉크색으로 변하도록 고문을 당했다. 쇠줄에 묶인 가족수갑을 양 손목에 찬

채 먹고 자고 불일까지 보면서 짐승만도 못한 상태로 지내야 했다”고 주장해 큰 파장이 일었다.

/길용현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8~23	혁신도	16~21
담양	18~23	구례	18~22
화순	18~23	곡성	18~22
영광	18~24	완도	19~22
함평	19~25	강진	19~22
무안	19~24	장흥	19~22
영암	19~23	해남	19~23
진도	18~23	고흥	18~22
신안	19~24	보성	18~21

출출 05:18 일몰 19:44
월출 --- 월몰 10:49

목포	만조 06:12 18:17	여수	만조 00:48 13:03
	간조 11:40 23:30		간조 07:13 18:55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교육부 “학종전형 개선안 등 8월 확정”

국가교육회의, 세부사항 정책연구 발주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 등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한 대학 입시제도 개편 세부사항을 8월 말까지 확정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정했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정점은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위주 전형 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종전형 개선안 가운데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와 대입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여부, 수능 과목 구조, 대학별고사와 수능-EBS 연계율 등은 교육부가 결정할 것을 통보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특히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교육평가 전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추천 연구자 등과 협력해 이해관계자 간담회, 설문조사,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을 개편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와 관련해 연구용역도 발주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시민참여형 공론화와 학생부 개선을 위한 정책속려제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5·18 왜곡 지만원 구속수사해야”

‘택시운전사’ 김사복 아들·시민군 지용씨 고소장 접수

지만원씨로부터 빨갱이 또는 북한군인으로 지목된 영화 택시운전기사 실제 주인공 김사복씨 유족과 5·18 시민군이 지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사복씨 유족과 지씨로부터 북한군인으로 지목당한 5·18 시민군 지용씨(76)는 4일 지만원씨를 사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지만원씨는 ‘힌트페터가 5·18음모에 가담한 간첩’,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졌고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고 주장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또 지만원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수(북한 특수군인)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대가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과정에서 지씨는 5·18기록사진에 등장하는 지용씨를 ‘제73 광수’로 지목했다.

지용씨는 지만원씨가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이 1980년 시민군 일원으로 항쟁에 참여한 서구 주민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사복씨 유족과 지용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낸 뒤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기념문화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과 함께 지만원 씨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길용현 기자

경찰·소방관·해경 대국민 호소문 발표

경찰과 소방관, 해경 등 이른바 ‘제복공무원’들이 일부 국민의 갑질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신들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해 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많은 제복공무원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일홍 나무서 자라는 벚꽃나무

상처 입은 틈새에 씨앗 뿌리 내린 듯

담양 소재원의 수령 200년 이상 된 백일홍 나무에서 벚꽃나무가 자라고 있어 화제다.

생태사진가 박석규씨는 지난달 중순 담양 소재원에서 소재원의 사계를 촬영하던 중 백일홍 나무에서 벚꽃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처음에는 백일홍과 벚꽃나무의 나무가지가 맞닿아 하나가 된 연리지 인줄 알았다”며 “자세히 살펴보니 백일홍 나무 주변에는 벚꽃나무는 없었고, 백일홍 나무가지 사이에서 벚꽃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구군 한국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은 “백일홍나무와 벚꽃나무는 다른 종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며 “상처 입은 백일홍나무



가지로 균이 침입해 나무 속이 썩은 상태에서 벚꽃나무 씨앗이나 열매가 들어가 뿌리를 내려 자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DK-301] 강력 접착 도막 방수제
[DK-302] 초강력 다목적 혼합용 방수제
[DK-303] 녹색 접착 코팅 방수제
[DK-304] 회색 접착 코팅 방수제
[DK-305] 드림데칼 3
[DK-306] 탑코팅 수용성 투명 방수제
[DK-307] 균열 보수제
[DK-308] 황토리
[DK-1000] 드림탄
[DK-2000] 드림콘
[DK-3000] 슈퍼 드림물 골드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특허명

드림코리아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